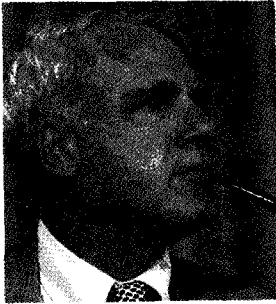


石油生産國과 消費國의 協力

- 內在된 問題點을 中心으로 -

Inherent Difficulties in Producer-Consumer Cooperation



James Schlesinger

前 美國 國防省·에너지省 長官

本稿는 美國의 前 國防省 및 에너지省 長官을 지낸 J.Schlesinger氏가 'WEC Journal 1990년 12월호'에 石油生産國과 消費國의 協力에 대하여 內在된 問題點을 中心으로 高찰하여 기고한 내용 全文을 翻譯 掲載한 것이다.

우리들은 현재 석유 消費國들의 활동에 의해서 제기된 최초의 석유 위기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걸프만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날의 석유 가격 앙등 현상은 석유 生産國들이 석유를 공급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석유 輸入國들이 석유 구입에 반대하여 서로 단결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극히 얼마전까지만해도 세계 제2위의 석유생산국이었던 美國의 한 시민으로서 산유국의 입장을 대변했을 법한 본인의 현 위치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갈구하는 미국의 욕망은 현재 세계 시장에 유입되는 석유의 삼분의 일 이상을 구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의 원유생산 능력이 다른 나라들의 돌연한 원유 공급 중단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 지대했습니다. 그 한 예가 수에즈 운하 위기

(Suez Crisis) 때 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았던 시절은 오래전에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미국이 주요 석유輸出國의 일원이었을 때 그 역할이 항상 국제적으로 석유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 8월에 일본에 대해서 석유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심했을 때 일본은 전쟁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외들은 필경 歷史家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즐겁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들을 지적할 것입니다. 걸프만 사태(Gulf crisis)가 生産國-消費國의 협력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다시 한번)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들은 왜 그러한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언제나 제이차적인 중요성에서 머물러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다는 역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호전성을 용정하기 위해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일은 그런 나라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석유生産國들과 消費國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거의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필경 이제에는 왜 그러한 협력관계가 항상 무위로 끝나고마는 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중요한 주제

먼저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보기로 합시다.

1. 국제 석유시장은 그 기능을 교란하는 단속적인 방해에 대해서 기이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원유 供給國들이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원유 輸入國들은 거의 필수적인 이 소비재를 항상 적기에 공급받으려는 필요성을 갖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유 시장이 극도로 취약함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장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2.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력은 마치 아서왕의 성배를 찾는 노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예 수업의 길을 나선 동키호테의 헛된 노력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석유시장의 안정성을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는 규칙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표에 의해서 묵살되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3. 시장 교란 행위는 언제나 비탄력적인 단기적 수요, 부가적인 공급 능력을 갖추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즉 단기적 공급에 있어서의 비탄력성을 가지고), 그리고 유지하기에는

대단히 비용이 많이들지만 정유공정과 소비자들의 심리적 안도감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우 거대한 예비저장 능력(inventory)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심리는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할 때는 거의 언제나 엄청난 수요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

국내적 국제적으로 원유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가 정치적인 목적보다 하위에 두어졌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합시다.

1947년에 미국에서는 아랍 국가들과의 기존 관계, 원유 공급의 안전 보장, 경제적 불안정 가능성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서 국무성과 국방성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국방성과 국무성의 건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마셜 장군의 권고까지도 무시하여 불과 몇 시간만에 이스라엘을 전폭지지로 결정했습니다.

1951년에 모사데 수상(Premier Mossadegh)이 앵글로-이란 오일회사(Anglo-Iranian Oil Company)의 국유화를 선언했을 때 소유주에 대한 정치적 논제는 명백히 원유 시장의 안전성 문제보다 중요하게 간주되었습니다. 그 때 서방국가들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원유 공급망의 재정비가 불가피했던 바 있었습니다.

1956년(이스라엘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원유 시장의 안정성과 원유공급 중단 위기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나세르 대령의 수에즈 운하에 점령을 역전시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967년의 6일 전쟁에서는 전쟁 당사자의 그 어느 편도 원유 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유 공급이 차단되고 수에즈 운하가 장기간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시장에는 별로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쟁이 매우 짧았고 1956년의 수에즈 운하 폐쇄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건조된 초대형 탱커들이 많았으며, 원유 공급선이 재빨리 변경될 수 있었고, 리비아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어 일찍 개발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반영했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967년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구해야 하는 절박성이 원유 공급의 중단사태가 야기되는 것에 우선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석유 위기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사실이 유포되자 그것은 아랍 국가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미국이 이스라엘에 공중보급을 개시하자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 국왕은 원유 생산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석유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여 처음에는 샤(Shar) 정부를 전복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도전하는데 이를 이용했습니다.(호메이니 자신은 이란의 석유가 국부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부패를 야기시키고 서방국가들이 팔레비를 앞세워서 국민들의 부를 약탈해가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말에 이르러서는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란이 미국대사관을 점령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산 원유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990년에(걸프만 사태로) 다시 한번 원유 시장의 안정성에 선행하여 어떤 정치적 목표가 추구되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에서는 또한 새로운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자국의 원유 생산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방 석유輸入國들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산 원유를 거부함으로써 이라크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걸프만 사태 그 자체는 쿠웨이트가 국경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주변국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OPEC의 할당량을 초과하여 원유를 생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다라도 원유 시장이 안정성은 다른 정치적 목표들에 의해서 쉽게 굴복되어 지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역할

현재의(걸프만) 사태는 기이하게도 미국이 국제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사회는 유럽 국가들이 실제 정치세력으로서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별로 달가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과 효과를 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51년 이란에 대해 취했던 무역 금지 조치를 기억해야 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만 해도 지미 카터는 이란을, 로널드 레이건은 리비아를, 그리고 부시는 이라크와 이라크 점령하의 쿠웨이트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경제제재를 감행했습니다. 모두 원유 수입 금지령을 통해 말입니다.

이제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 베트남에서 원유 시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베리아에서 원유와 가스를 채굴하려던 소련과의 거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소련과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국의 석유회사들에게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석유 문제 이외에도 미국은 또한 최근 들어서 쿠바, 니카라과, 파나마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로디지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정치적인 불인정을 괴시하는 수단으로써 비교적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은 엄청난 국민총생산(GNP)과 매우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 보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국제 사회가 무역에 보다 민감한 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과 같은 나라에 의해서 선도된다면 매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미국만이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현재 상태가 지속되는 한 국제 사회는 경제적 제재에 동조하도록 고무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바로 이라크와 쿠웨이트에 대해

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조치가 고통을 수반치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국제 협력을 위한 선행조건

석유 시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극소수 주요 국가들이 충분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저를 스포츠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먼저 제이차적인 사항, 즉 정치 이외의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익에 선행하여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개인에게나 정부에게나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만약 국제협력이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만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어려움은 더욱 증가됩니다. 더욱이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에의 유혹은 그야말로 대단해서 할인율(discount rate)의 제공이라는 유인이 있을 때에는 쉽게 굴복되기가 십상입니다. 消費者나 生産者나 carpe diem(현재를 즐겨라)라는 구호에는 늘 약하기 때문이다. 석유輸入國들은(국제협력이 없이도) 현재의 저유가(低油價)가 제공하는 이익을 취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피하여 결국 나중에 고유가(高油價) 시대가 되어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生産國들에 있어서는 현재 원유수출로 인한 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적절히 투자해서 나중에 저유가 시대가 되어 수입이 줄어도 그것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석유 가격의 조건을 다양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협력 관계를 조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아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부 나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협정을 맺는 데에 있어서는—이 분야에서는 협력 관계의 조성이 필수적입니다—관계당사국들의 모든 이익이 절충되어져야만 합니다.

물론 석유輸入國들 사이에서도 이해 관계가 상치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관점에서나 정치 군사적 목표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추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외화의 유출을 최소로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국제가격보다 훨씬 비싼 국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국가들은 안보상의 이유에서 불안정한 원유 공급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들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협력 관계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러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인 동기들을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하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원유 시장에서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원유 生産國들과 消費國들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주거나 받거나 하는 관계가 유지되며 시장이 선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유 공급 능력이 충분하고 잠재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가 야기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원유 生産國들이 앞장서서 국제 협력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때 소비국들의 입장에서는 원유가의 하락을 예감하고 한걸음 물러서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석유 가격이 상승하며 생산 시설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들이 나서서 협력 관계를 주장하는 반면 生産國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나 값싸게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그리고 석유 수입의 보전을 위해서) 장기적 협력 관계를 조성하기를 여전히 희망합니다.

협력 관계 조성에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피하게 자기의 이익을 어느 정도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EA 회원 국가들이 원유 시장의 사정이 절박할 때 결속력이 느슨해 지는 것은 OPEC 국가들이 원유가가 폭락할 때 공동 보조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生産國들과 消費國들을 한데 묶어서 주협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낙관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협력 관계 조성에서 얻어지는 이익

국제 협정의 체결에 실패하는 것에는 달리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국제 경제는, 원유 生産國들이나 消費國들을 막론하고, 석유 시장의 교란이 적어지고 원유의 공급과 가격 전망의 불투명성이 감소됨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비록 국제 협력이 항상 완벽하게 작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때로는 깨어지기도 합니다—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제 협력은 단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 완화없이 해결되는 일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국제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치가 높을수록 우리들은 가상적인 협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자 착수하는데 있어서 우리들은 먼저 협정을 맺는 일은 모든 당사국들이 그러한 교란이 장기적으로 자기들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에 동의할 때 그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였습니다. 현재의 걸프만 사태 기간 동안 OPEC 국가들이 할당량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데 동의한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걸프만 사태가) 세계 경제를 해치고 따라서 원유 시장에 피해를 주며—다른 에너지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손상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이라크와 쿠웨이트산 원유의 손실을 OPEC 국가들이 나서서 보충하지 않으면 이 일을 기회로 원유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들 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별로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석유 생산 능력을 점진적인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서서히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生産國과 消費國의 협력관계 수립에 있어서 기본틀로 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협력이 없이는 수요의 증가가 생산 능력을 앞지를 수 있으며, 그 결과 가격 상승이 초래되어 일부 消費國들이 영원히 석유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대체하여

원유 시장을 악화시키고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 경제가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은 이러한 일을 초래치 않게 하는 것이 生産國과 消費國의 협력관계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과실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앞으로 석유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면—걸프만 사태와 그 여파로 당분간은 그리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생산 능력도 따라서 점진적으로 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 관계가 더욱 필요해 질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는(국제 협력에 있어서) 너무 많은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력은 제반 조건이 가장 나쁠 때와 가장 좋은 상태에서 잘 유지됩니다. 석유 생산국들이 수요의 증가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렇게 함으로써 석유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따라서 협력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생산 시설의 확충이 너무 성급하다면 원유 시장의 안정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국제 협력의 조성에 있어서) 내가 석유 消費國들이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그들의 뉘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사실상 기여할 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석유 가격이 너무 상승하지 않도록 원유 비축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는 일 이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여는 국내 경제가 너무 불안하게 되지 않도록 보살펴서 국제 석유 시장이 덩달아 춤추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그러한 국내 경제불안을 피하는 일은 국제 시장의 안정성 보호보다도 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말하건대, 석유 輸入國들은 원유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하여 원유 생산 시설 또한 점진적인 확충을 계속하도록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점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하나는 석유 生産國들이 이 점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산 부문에서 역력이

결론

남아있는 한 消費國들이 가격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그렇게하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충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제 협력이 그러한 일까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유토피아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석유 消費國들은 그러한 자제심을 결코 갖지 않는 것입니다.

원유 가격이 때로는 너무 높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하며 또한 주기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석유 生産國들은 망서리지 않고 석유 생산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생산 시장 안정에 대한 주된 책임은 석유 生産國들에 놓여 있지만 석유 消費國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후원을 아끼지 않을 때 그것은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국제협력 관계가 여러나라가 참여해서(multilateral basis)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IEA와 OPEC가 공식적으로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이—그리고 다른 관계 당사국을 초청해서—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IEA가 왜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서려 하지 않는 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은 내가 평가하기로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석유 生産國들과 消費國들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마련된다면 양쪽의 관계가 모두 크게 향상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대화의 개방이 석유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 이외에 각 국가들의 당면 목표들은 도외시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 협력관계는 석유 生産國들과 消費國들의 사이에, 또는 양 집단 내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란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크게 경감시킬 수는 있겠지요. 장기적으로는 분명 그러하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이 석유의 생산과 사용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나라나 개인은 정부나 정책 집행자들이 석유 시장의 안정이라는 목표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生産國들과 消費國들 사이에 협력 관계가 이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때로(이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그런 협력 관계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각 나라들이 석유 시장의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자신들의 다른 정치적인 목표들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를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달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상이라고나 하겠습니까.

나폴레옹은 한 때 “만약 여러분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촉발시키는 뇌관을 뽑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금언은 걸프만 사태에 대해서도 의미심장하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나라들은 석유 시장의 안정(즉 평화)를 해치는 뇌관을 회피하려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석유 消費國들과 生産國들 사이의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일은 다시 한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논의가 재개되는 것은 이해할 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단지 희망만을 피력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협력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한 메카니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生産國들과 消費國들 사이에 협력 관계의 질박성을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칸트가 지적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상충하는 험난한 세상에서 한꺼번에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점진적인 노력만이 이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譯者 : 홍욱희 박사(한전기술연구원)